

## **(주)라닉스, 차세대 V2X 통신, 보안, S/W 플랫폼 통합 솔루션 로드맵 발표**

▶ 카이스트 기술교류회 통해 첨단 모빌리티 기술 기반 자체 비전 공개

**(주)라닉스가 '2023 퓨처모빌리티산업 산학연 기술교류회'에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기술력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카이스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가 주최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글로벌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다. 이 교류회는 금일 KAIST 학술문화관에서 미래차 및 첨단기술 산업 협력을 위한 목적으로 약 300명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주)라닉스는 ▲5G-V2X 통신프로세서 ▲V2X 보안프로세서(RS2522) ▲Ranix V2X S/W Platform(RVP: (주)라닉스가 독자기술로 개발한 국제규격 호환 V2X 통신 및 보안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이와 더불어 통신, 보안, 플랫폼 등의 핵심 기술을 집적하여 고성능 제품을 구현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교류회를 통해 제품 및 로드맵을 공개한 (주)라닉스는 첨단 모빌리티 기술 기반 5G-V2X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특히 회사측은 “2024년 내에 5세대(5G)-New Radio(NR)-V2X 표준 규격을 준수하는 모뎀과 통신 프로토콜 스택의 토탈 솔루션을 상용화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모뎀칩은 SDR(Software Defined Radio) 기술 적용으로 미국,한국,유럽,중국 복수 통신규격 지원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고속의 전자서명 검증을 위한 보안 가속기 RS2522는 한국, 미국, 유럽은 물론 중국 규격까지 만족하는 V2X 보안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 (주)라닉스의 제품 적용 가능 범위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RVP 솔루션은 표준 V2X 규격을 모두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솔루션으로 고객사에서 빠르게 V2X 응용업무 개발 및 제품화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주)라닉스 최승욱 대표는 “자체 V2X 토탈 솔루션 제공을 통하여 전세계 V2X 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끌기를 희망”하며, “금번 행사 참여를 통해 검증받은 (주)라닉스의 V2X 기술력을 발판삼아 차세대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KAIST 학술문화관에 위치한 라닉스 부스, 사진제공=라닉스>

